

창작, 모순과 조화 그리고 EndoTODAY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이준행

EndoTODAY: pull과 push의 조화

- <http://endotoday.com>
- 전자우편을 이용한 EndoTODAY Daily Update

EndoTODAY를 읽는 시간

하루 분량의 EndoTODAY를 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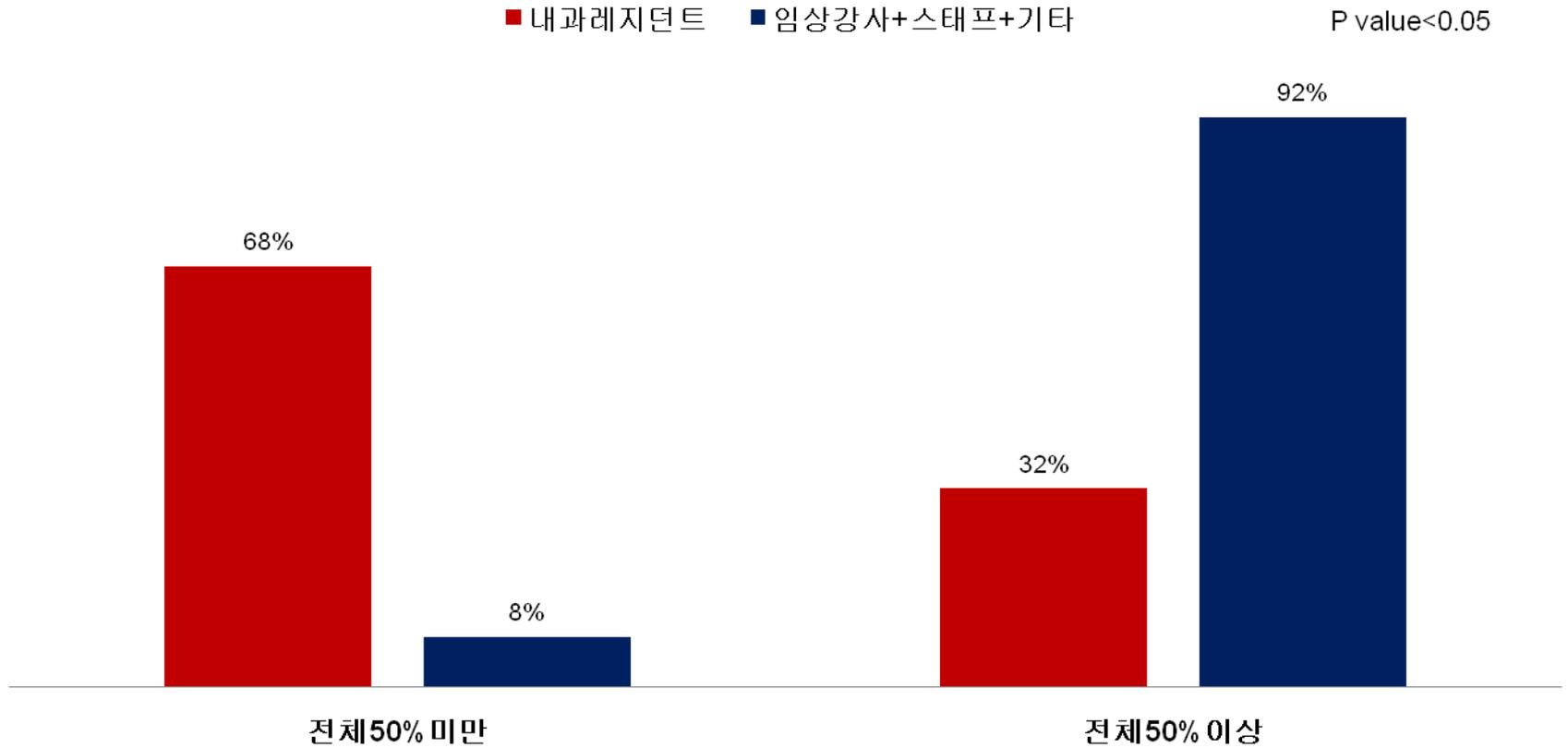
자신이 받은 EndoTODAY 중 어느 정도를 읽어보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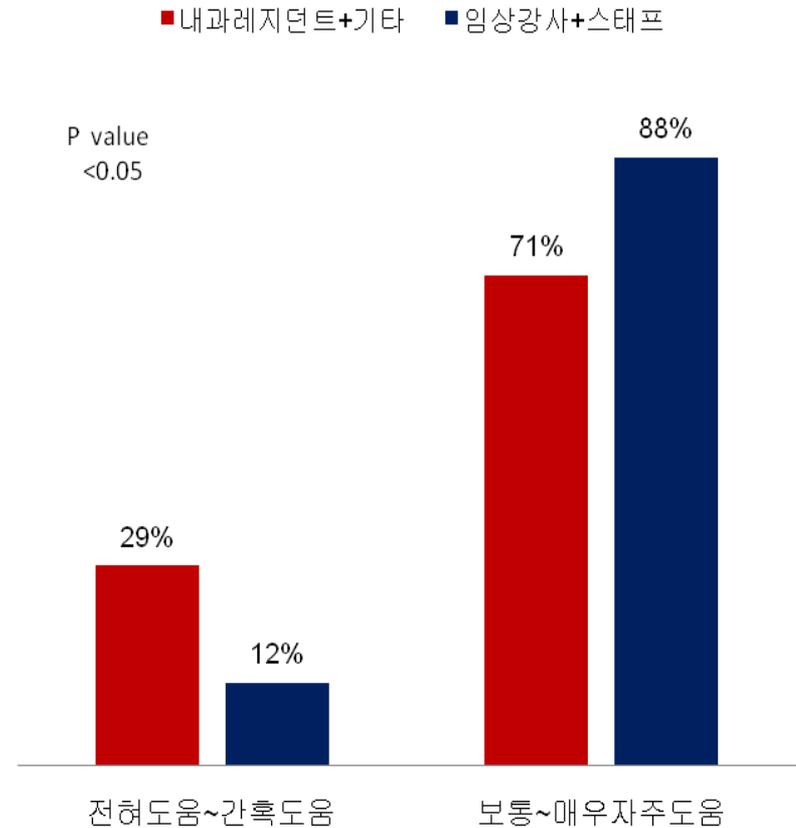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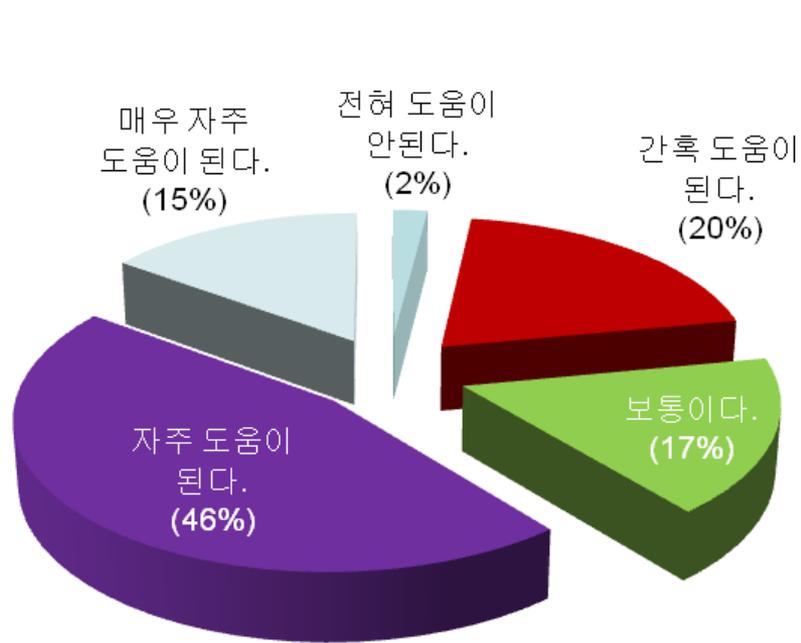
EndoTODAY는 언제 보십니까?



자신이 받은 EndoTODAY중 어느 정도를 읽어보십니까?



EndoTODAY를 통하여 배운 지식은 선생님의 진료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EndoTODAY의 역사 (1)

- 1999. 개인 홈페이지 serioso.pe.kr
- 2004. Intranet을 이용한 교육자로 발송
- 2005. 교육자료를 serioso.pe.kr에 저장
- 2006. 외부 메일을 이용하여 동문께 자료 발송
- 2008. PDF 자료를 매일 발송
- 2010. Mobile friendly webpage로 변환

EndoTODAY의 역사 (2)

- 2012. 반응형 웹으로 전환
- 2015. 삼성서울병원 집담회 on-line 중계
- 2017. YouTube와 아프리카를 이용한 강의 실시간 중계

EndoTODAY의 특징 - 구조

- On line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형식 변화, 수정 보완, 하이퍼텍스트와 과거 소스 활용을 통한 과거 자료 활용, 링크를 통한 외부 자료 활용
- 전자 우편을 이용한 주입식 교육: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
- 반응형 웹 개념을 적용하여 활용도 극대화: 어느 기구에서도 빠르고 쉽게 보임. 지하철 출근길에서 잠깐 읽는 분이 많음

EndoTODAY의 특징 - 내용

- 철학: 우리 현실에 적합한 단순하고 저렴한 환자 중심의 이상적 내시경 검사법 개발과 보급.
- 주 독자층: 내시경 입문 1-2년차 소화기내과 fellow
- 주 내용: 증례 중심의 생생한 전문가 의견 + 실용적 숨은 기술 제시 (환자 설명서, 진단서 쓰기, 코드 부여하기, 보험회사 직원 응대법 등)

EndoTODAY의 특징 - 기타

- Open Q and A: 초보자와 여러 전문가 의견이 교류 반영됨
- 과거자료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찾기 기능
- 단순한 소스 코드를 혼자 관리

애독자 편지 (1)

펠로우 시절에도 선생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병원밖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게 말로는 표현할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아직 선생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느낌도 있어서 더욱 좋구요.

EndoTODAY를 보면, 우리가 공감하지만 안타까운 현실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생각들이 와닿아 같이 맘이 아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답니다.

교육자료를 넘어서... 마치 에세이 같기도 하고... 때론 사설 같기도 하고 때론 평론 같기도 한... 그래서 읽는 재미와 감동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애독자 편지 (2)

- 불모의 땅 교육 오지에서 홀로이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 모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소화기내과 전임의 XXX입니다. 위내시경 목넘김이 너무 힘들어 인터넷, 유튜브 등을 서치하던 중 endotoday 를 발견하였습니다. 한 달 남짓(?) 위내시경을 배우면서 너무 궁금한데 교수님께는 물어보지 못하였고 senior fellow 선생님께 여쭙보면 시원치 않은 답변을 들었던 문제들의 해답이 모두 EndoTODAY에 있는것 같습니다~! 정보들을 인터넷에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회(지)를 위한 제언 (1)

- Positioning: Gastroenterology와 경쟁할 것인가, 젊은 의사들의 교과서/참고서가 될 것인가?
- 유연성 확보 방안: Off-line만 유지할 것인가 on-line을 보강할 것인가?
- 가이드라인 개발과 보급 - "우리는 공연 기획사 직원이 아닙니다."
- 볼거리 늘리기. 증례 혹은 실용적 비법. Image of interest
- 개인 의견을 담아낼 방법은 없을까? - Non-peer-review article (예: How I do it.), 전문가 인터뷰, 좌담회 지상 중계 등

학회(지)를 위한 제언 (1)

- 독자 의견 활성화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Facebook 댓글을 옮길 수 없을까?
- 반응형 구조 활용한 접근성 확보 - 컴퓨터에서도 잘 보이고 핸드폰에서도 잘 보이도록
- 과거 자료 재활용을 위한 방법 개발 - Best 10 articles.
- **한 마디 요약**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이 학회와 학회지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